

낙태 생존아 멜리사 오든의 이야기

# RIPPLE EFFECT OF ABORTION

“낙태는 아이를 둘러싼 여성의 복합적인 고민들(경제적 고민, 자신의 삶의 상실, 가족과의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아이의 미래 등)을 단순화 시켜준다. 그래서 낳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고로 낙태는 선택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로 인한 파급효과는 없을까요?



## 멜리사의 양언니▶

흥, 그래도 최소 우리 부모님은 날 원하셔서 낳았어! 너희 부모님은 안 그러셨는지?

멜리사 오든의 삶은 그녀가 14살 때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완전히 바뀌었다. 이 모든 게 양언니의 그 한 마디 때문이었다. 그녀의 양부모는 15년간 불임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이 컸다. 그런 와중에 멜리사의 양언니를 입양하고, 4년후 인큐베이터에 있는 1.3 킬로그램의 손바닥만한 작은 체구의 멜리사를 입양했다. 가녀린 멜리사가 아이오와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기까지 수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멜리사가 14살이 될 때까지 비밀로 남아 있었다.

당시 굵디고운 18살 고등학생이던 양언니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언니는 그 사실을 양부모에게 알리면서 낙태를 마음 먹었다고 전했다. 이에 양부모는 고등학생 딸에게 낙태가 자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며 멜리사의 숨겨진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멜리사는 낙태 생존아였다.

14년 전...

## 간호사▶

이건 말도 안돼요! 아이가 아직 살아 있잖아요! 치료를 해서 아이를 살려야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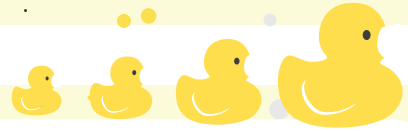
## 멜리사의 외할머니 (당시 간호사)▶

그냥 놔둬! 이 아이는 어차피 죽을 아이였잖아! 독극성인 염수를 온몸으로 다 마셨으니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해. 가만히 두는 게 맞아.

## 간호사▶

무슨 소릴... 이 아이도 생명이예요. 살려야 됩니다!!





멜리사는 염수낙태 대상자였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보통 3일이면 끝나는 낙태를 멜리사의 생모는 5일간 이어가게 되었고, 그 동안 멜리사는 염수를 다 받아들여 피부도 붉게 바뀌어 있었다. 유도 분만으로 태어난 멜리사는 사산아가 아니었고 살아있었다. 그걸 간호사들이 본 것이었다. 당시 유능한 간호사였던 멜리사의 외할머니는 자신의 딸인 멜리사의 생모의 낙태 수술실에 들어가 직접 아이를 받았고, 낙태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를 죽게 놔두라고 요구했었다. 꽃다운 19살의 어린 나이에 아기를 위해 창창한 미래를 버려야 하는 딸의 모습을 보기 싫었던 것이었다.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멜리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생명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긴 모든 간호사들이 멜리사의 외할머니의 고집을 뚫고 멜리사를 살려냈다. 손바닥만한 작은 아이 멜리사에게 이름도 지어줬고, 니트를 짜주기도 했고, 다른 사람 몰래 먹을 것을 갖다 주기도 했다. 이후, 멜리사는 아이오와 병원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지금의 양부모를 만나게 되었다.

언니의 에피소드로 인해 자신의 숨겨진 출생의 비밀까지 알게 된 멜리사는 충격이 어마 어마 했다.

멜리사▶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비밀로 한 거예요?  
나도 알 권리가 있다고요!

양부모▶

미안하구나. 네가 이 이야기를 몰랐으면 했단다.

멜리사▶

날 낳아준 엄마, 아빠는 나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부모님을 찾고 싶어요.

이날 이후로 멜리사는 열심히 생부와 생모를 찾았고, 자신의 부모가 어린 나이였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며 결혼을 약속했었던 사이였고, 멜리사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를 받아들이고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원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외할머니의 선택으로 인해 다 처참히 무너졌다. 낙태를 한 멜리사의 엄마와 아빠는 아이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결국 둘의 관계는 깨어졌다. 엄마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자신의 부모와도 인연을 끊고 살아갔다. 결국 외할머니는 원치 않았던 손녀로 인해 딸도 잃게 되었다. 아빠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는 했지만 마음 깊은 한 곳에는 이 사건이 가져다 주는 아픔과 죄책감으로 인한 슬픔으로 가득 채운 채 살아가다 51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36번째 생일날 멜리사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에게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엄마를 찾기 위한 수 년간의 피나는 노력이 빛을 바란 순간이었다.

**“36년전, 난 너를 강탈 당했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을 한 것입니다. 실제 주인공 멜리사는 지금 낙태 생존자들의 모임인 The Abortion Survivors Network (ASN)을 운영 중이고 낙태 생존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복합적인 고민들을 일찍이 없애기 위해 선택한 낙태, 과연 삶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요?

낙태를 선택한 많은 여성들이 죄책감과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낙태를 선택한 여성뿐만 아니라 아기의 아빠와 그 가족, 주변인들 또한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낙태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자신이 낙태 대상자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이 통째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라고 하는데 자기결정권으로 인한 결과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결정권은 한 사람의 선택으로 여러 명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권리까지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낙태는 결코 삶을 단순화시킬 수 없습니다.**